

북스

어린이 책꽂이



▲나노 이제 학교 가요=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을 위해 학교생활에 대해 소개하는 친근하고 재미있는 그림책. 등교부터 학교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를 이끌어감으로써 아이들이 학교생활의 전부를 이해하도록 했다. 부록으로 '학부모를 위한 안내'와 워크북도 담았다. (시공주니어·1만2000원)



▲바보같은 닭=중국 스타 작가 차오윈쉬엔의 그림책. 1960~1970년대 중국의 강과 호수가 있는 농촌을 배경으로 거기서 나고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을 따뜻하게 표현하고 있다. 온갖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검은 닭을 통해서 꿈과 희망, 용기에 대해 배울 수 있다. (미래아이·9000원)



▲아빠가 제일 좋아요=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딸과 함께 하루를 보내게 된 아빠, 딸과 어떻게 놀아줘야 하는지 몰라 난처해지는데... 아이가 칭얼거리고 버릇없게 굴어도 아빠는 묵묵히 기다리며 받아준다. 말수가 적고 행동이 굼뜬 아빠는 어린 딸이 마냥 예쁘기만 하다. 아빠와 딸의 교감을 재미있게 그렸다. (예림·1만1000원)



▲할머니 제삿날=민수 엄마는 민수가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할 때마다 "할머니는 제삿날이 되면 오신다"며 아이를 달랬다. 민수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꼭 1년째 되는 날, 드디어 민수가 기다리던 할머니 제삿날이 됐다. 제사의 진정한 의미, 제사상 차리는 법, 제사 지내는 순서 등을 아이들 시각에서 알려준다. (비룡소·1만원)



▲도레미 아옹=‘학교에 환경책 초록이’ 시리즈의 첫 번째 권. 동네 뒷골목 쓰레기장을 떠도는 도둑고양이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우리 주변의 심각한 쓰레기 문제를 꼬집었다. ‘도레미’란 ‘도둑고양이가 푸는 쓰레기 미스터리’를 줄인 말이다. 이들은 쓰레기와 관련한 미스터리를 하나씩 풀어간다. (학교재·1만1000원)



▲왕창세일! 엄마 아빠 팔아요=푸른책들 '제1회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한 이용표씨의 신작 동화. 잔소리 많고 심부름만 시키는 엄마 아빠를 마녀한테 팔아버린다는 발칙한 설정이 재밌다. 마녀 소꿉을 탈출한 엄마 아빠를 뒤쫓으면서 펼쳐지는 모험을 통해 억눌린 아이의 마음을 풀어준다. (창비·8500원)



▲돌고래를 부탁해=독일작가 베아테 필링의 신작. 시골의 작은 학교에 신입생들의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교를 닫는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이 학교의 학생 레오, 플로라, 요한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학교를 지켜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낸다. 그리고 그들의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청어람주니어·9500원)

▲구성에 아홉마의 뉴츨딩아우성=아이들 관점에서 몸의 변화와 성에 대한 호기심을 풀어주는 성교육 만화 '초딩 아우성' 개정판이다. 초등학생들 질문과 상담 내용을 분석해 성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재밌게 구성했다. 인터넷 음란물에 무방비로 노출된 아이들이 성을 건전하게 익히도록 돕는다. (울리브엔터테인먼트·1만원)

공부도독이 들려준 '배움의 즐거움'

공부의 즐거움

장희익 지음



국내 최초 대학학인 '녹색대학'의 총장을 역임하는 등 실천하는 지성의 삶을 살아온 장희익(73) 서울대 명예교수가 '공부도독'으로 살아온 자신의 공부 인생이 녹아든, 겸손하면서도 특별한 이야기들을 담은 책 '공부의 즐거움'을 출간했다.

국내 물리학계의 원로인 장교수는 '은생명 이론'이라는 통섭적이고 자생적인 학문 성과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지성으로 여러 강연 활동을 통해 자신의 학문과 공부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었다. 지난 2008년에는 '공부도독-한 공부꾼의 자기 이야기'라는 책을 통해 70년 공부인생 이야기를 털어놓은 바 있다. 이번 책에서도 역시 끝이 없는 그의 '공부 욕심'을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왜 하필 '공부도독'일까? 장교수는 책을 통해 전 우주의 학문 보물창고에 들어가 학문의 정수들만 다 골라 훑쳐내고 싶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도독이 제대로 된 도독 교육(?)을 위해 자식도독을 곤경에 빠뜨리는 일화를 다룬 여현의 '도자설'(盜子說)을 예로 들며 진정한 고수 도독이 되는 법을 귀띔한다.

진정한 고수 도독이 되려면 한두 개 문만 여는 열쇠가 아니라 모든 문을 여는 특별한 열쇠가 필요하며, 이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공부도독이 되려면 모든 학문 보물창고의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 특별한 열쇠가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스승을 통해 배우는 공부의 즐거움'이라고 설명한다.

책은 '창고에 갇힌 도독', '인삼과 산삼' 등 10가지 이야기를 이어가며, 나지막하지만 강한 어조로 힘차게 학문의 길을 걸어갔던 자신의 공부 인생기를 들려준다. 어린 시절 공책 한 권 구하기 힘들었던 가난, 할아버지의 반대로 인한 자퇴, 공고에 진학해 스스로 미적분학을 깨우친 계기, 서울대학교의 '나물포(나물리 포기)' 현상, 미국 유학을 통해 아인슈타인의 직계 제자(?)가 된 사연 등 장 교수가 걸어온 인생의 길, 공부의 길은 참으로 흥미진진하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진정한 공부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끊임없이 깔려 있다.

"자기 몸과 학문의 세계를 하나로 조화시켜 그 안에서 지속적인 즐거움을 찾아나가는 길"이 진정한 공부의 즐거움이라고 전하는 장교수 진정한 이 야기는 짧은 시간 안에 다른 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경쟁하는 요즘 교육 시스템이 단지 학생들을 '점수 따는 기계'로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실감하게 한다. 또한 학문을 업으로 삼아 새로운 연구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연구자들에게도 새로운 참 공부의 길을 일러준다.

그러면서 장교수는 학문의 길은 평생에 걸쳐 올라야 하는 등산길과 같다고 말한다. "학문을 말하자면 일생을 두고 오르는 등산길이다. 빨리 올라가 멋진 조망을 보고 남이 오르지 못하게 새 봉우리에 첫발을 디뎠다는 영예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어찌 없겠는가? 오직 자기 몸과 학문의 세계를 하나로 조화시켜 그 안에서 지속적인 즐거움을 찾아나가는 길만이 장기적인 성취를 가능케 하는, 설혹 특별한 성취가 없더라도 그 삶 자체로 값진 것이다." (301쪽)

더불어 독자들에게 인자한 스승의 목소리로 고백한다. "나는 아직도 공부가 좋습니다"라고, 이것이 그가 평생을 두고 '열공'하는 이유일 것이다. (〈생각의나무·1만3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장희익 교수

청소년기의 억압과 외로움 묘사

아틀란티스야, 잘 가

허수경 지음



'슬플만한 거름이 어디 있랴' '혼자가는 먼길' 등을 통해 외로움과 아픈 상처를 서정적인 언어로 노래한 재목 시인 허수경(47)씨가 장편소설 '아틀란티스야, 잘 가'를 펴냈다. 첫 성장소설로 청소년 문학잡지인 '꽃'에 2009년 봄부터 지난해 여름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연재한 작품이다.

폭력적이던 1970년대, 부패 공무원인 아버지와 계모임으로 바쁜 어머니 사이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실'의 유일한 낙은 전 빵을 먹는 것이다. 그러나 그 대가로 '전'에서 가장 풍성해진다. 경실은 그런 자신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시선이 싫지만, 전빵 먹는 일을 그만 두지 못한다. 대신 경실은 일기를 쓴다.

이런 경실 앞에 자신이 이복 언니라고 주장하는 '정우'가 나타난다. 지구의를 '빙그르르' 돌려보길 좋아하는 소녀다. 경실에게 사라진 대륙 아틀란티스에 대해 들려준다. 둘은 매일 아틀란티스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꿈꾼다.

이십여 년 전 한국을 떠난 뒤 주로 독일에 거주중인 작가는 "7, 80년대의 참담한 시절이 지나갈려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독일로 와서 공부도 하고 타국의 문화도 접했지만 제가 겪었던 그 시절이 아직도 우리를 떠나지 못하고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았노라"고 고백한다. 그리고 자신이 중학생 시절을 떠올리며 꿈꾸는 것조차 억압받았던 당시 청소년의 심리를 섬세하게 다독이고 있다. (문학동네·1만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불패신화' 부동산 과학적 고찰

100년의 비밀

홍성열 지음



대한민국 부동산 불패 신화 속에 감춰진 진실은 무엇인가? 자산관리 전문가인 홍성열 노-How 부동산연구소장이 쓴 '100년의 비밀'은 우리나라 부동산 역사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고찰한 실용 경제서이다.

책은 기존 부동산 관련 재테크책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부동산 지식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는 사람·돈·정책을 중심으로 동산의 흐름과 주요 변수를 파악할 때에 부동산에 좀 더 손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개인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 환경에서 개인 자산을 관리하는 전문가나 공인중개사들이 고객과 부동산 상담을 할 때 가장 필요한 사항들을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또 개인이 증식한 재산을 어떻게 안락한 노후생활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방안까지 알려준다. 저자는 서울과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과 소도시들의 부동산 흐름과 전망까지 꼼꼼히 담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는 수도권으로만 집중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방 부동산 실수요자들을 위한 배려에서다.

부록에 담은 전국 장기요양시설 현황, 초광역권 4대 벨트 구상, 내륙 초광역개발권역 등에 대한 표와 그림도 유용하다. (다올생각·1만5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현대미술에서 얻어낸 '경영철학'

미술관에 간 CEO

김창대 지음



마르셀 뒤샹은 화상실에서 사용하는 번거로운 붓을 딱히 전시장에 설치하고 '샘'이라는 이름을 달았다. 메레 오펜하임은 커피잔과 스푼을 영영의 토포 '오브제 혹은 모피로 덮인 찻잔'을 작품이라고 내놓았다. 고정된 관념을 깬 역할상의 결과물들이다.

이런 역할상은 기업체들에게도 '성공'을 안겨줬다. 게임기 시장에서 고전하던 닌텐도사는 '게임'이 갖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뒤엎어 '닌텐도 DS'와 '위'를 만들었고 대박을 냈다.

김창대(동서대 경영학부) 교수가 쓴 현대미술에서 얻어낸 8가지 창조적 통찰을 경영, 일상생활과 접목시킨 '미술관에 간 CEO'를 냈다.

책은 현대 미술에서 얻어낸 8가지 창조적 통찰을 제시한다. 그가 제시하는 8개의 키워드는 보이지 않는 욕망을 읽어내는 통찰력, 남과 다른 1%의 독창성을 일컫는 핵심역량, 경계를 파괴하고 신세계를 창조하는 모호함, 역할상이 불러오는 일상타파, 보편성, 융합, 단순함, 해체와 재구성이다.

대우조선, 삼성전자, 마이크로 소프트사 등 국내외 굴지의 기업들이 '미술'에서 어떤 영감을 얻고, 그것들이 어떻게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는 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풍부한 사진자료들이 실려 있어 이해를 도우며 일반 독자들이 읽어도 흥미로운 내용이 많다. (웅진지식하우스·1만5000원)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Small Meeting Big Joy!!' featuring various local businesses and services. Includes categories like 'Game/Business', 'Real Estate', 'Food/Drink', 'Beauty/Salon', etc.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each.